

우유의 좋은점과 우유먹기를 권장한 편지

이글은 지난 1월 15일 편지가족모임 중앙회(회장 황인호) 주최로 열린 제2회 편지가족 편지쓰기 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차지한 어린이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금 상



나의 친구 은정에게

서울·문맥국민학교
3학년 임 승 은

은정아, 안녕? 잘있었니?

부모님께서는 안녕하시고? 혜정이와 개구장이 영우는 잘 있니? 우리집 식구는 모두 안녕하시고 나도 잘있단다.

은정아,

네가 전학간 후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니? 힘센 사람도 떼어놓을 수 없는, 콩알도 나눠 먹는, 가장 단짜이었던 네가 갔으니까 말이야.

은정아,

1학년 때 일 생각나니? 파마머리 조윤주, 키다리 이면서도 개구장이였던 황정호, 난장이 꼬마 정용안 등등 1학년 때의 재미있는 친구들의 일 말이야.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즐겁게 뛰놀던 1학년 때의 일들이 그리워져. 또 김정현 선생님, 얼마나 좋은 분이셨니?

참 그런데 은정아, 너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한 가지 걱정이 있어. 아직도 맨 앞자리에 앉니? 병원에 갔다오느라고 학교를 늦게 가곤 하지는 않니?

은정아,

나는 그 동안에 난장이·갈비라고 불리던 별명에서 해방되었어. 이제는 달리기도 1, 2등을 지키고 여자아이들을 괴롭히는 남자아이들을 혼내 준단다. 여자아이들은 모두 내 뒤에 숨느라고 야단이야. 무

척이나 우습지?

은정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인 줄 아니? 내가 너에게만 살짝 가르쳐 줄까? 바로바로 꿀꿀 꿀꿀 맛있는 우유 덕분이란다. 나도 처음에는 우유가 무척이나 먹기 싫었어. 그런데 몇 번 먹어보니 지금은 반대가 돼 버렸지 뭐니? 우유가 고소하고 맛있어졌어. 그래서 나는 우유 그림이 나오면 꼭 고맙다고 속으로 말한단다.

은정아,

우유를 먹었더니 좋아진 것이 또 하나 있단다. 바로 얼굴이 예뻐진 점이야. 두 볼이 빨개지고 조그마하던 얼굴이 커졌어. 예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단다.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 번 말해본거니까.

은정아,

운동하기를 싫어하고 얼굴이 노랗던 내 동생도 확 달라졌어. 달리기가 특기가 되고 얼굴도 예뻐졌단다.

은정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바람으로 얼른 뛰어나가 우유를 들여온단다. 그런데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우유 배달부 아저씨는 이른 새벽에 우리집에 우

유를 갖다 놓으셔서 우유 아저씨를 만날 수가 없어. 참 고마운 분이시지? 우리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가져다 놓으시니까.

은정아,

우유를 싫어하지 말고 많이 먹어봐. ‘사과 같은 내얼굴……’ 이라는 노래가 있지? 네 얼굴도 사과

처럼 예뻐질거야. 또 키도 부쩍 클거야.

은정아,

우유를 많이 먹어서 이 다음에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만나자. 우유 먹기 시험도 할래?

그 곳 소식 많이 보내줘. 편지 또 할게, 그럼 안녕.

은 상

그리운 친구에게

서울 · 행당여자중학교

1학년 강 국 화

친구야!

네 얼굴을 못본지도 어언 3년, 넌 내 얼굴 기억하겠니? 난 네 얼굴, 음성마저 잊어버릴것 같아.

시골에서의 생활은 어땠니? 너와 나는 국민학교에선 알아주는 유명한 단짝이었는데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건지…….

내 걱정은 하지마 난 건강하게 잘있거든. 그러나 네 건강이 문제야 키도 작거니와 몸도 허약했잖나. 그래서 말인데 너에게 무리하지 않은 건강요법을 가르쳐 줄게.

나 요즘 우유먹고 있어. 넌 아마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놀라겠지? 학교에서의 우유급식은 모두 먹기싫어서 버리든가 아니면 남에게 주기까지한 내가 어떻게 이리 변했는지 나도 놀랄정도로 우유를 좋아하게 됐어. 내가 우유를 싫어하는건 잘 알지만 내가 이토록 권하는 이유를 꼼꼼히 생각해봐.

우유는 “영양소의 보물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영양소가 많아. 무려 114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을 정도니 정말 보물덩어리 구실을 하지 않겠어? 넌 특히 키가 작잖나. 우유는 키가 크는 것을 돕는거야. 또, 소화도 잘된대, 너무많이 마셔서 살찔 걱정은 없해도 돼 비만에도 효과가 아주 크다고. 사실 나도 처

음 먹었을때는 끈육이었어 어머니의 고집으로 할수 없이 먹었어. 비릿한게 내 비위에도 안맞는것 같아서 코를 막고 마시기도 했지. 그러는 동안 우유의 고소하고 진한 맛을 좋아하게 된거야. 그리고 우유의 효과도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어. 난 몸집에 비해 키가 작았지만 우유를 먹고나서 군살도 안찌고 키도 전보다 부쩍 커졌어.

난 누구에게 뭘 먹어보라고 편지까지 쓰는 성격이 아닌데 너무 신기해서 너에게 먼저 알려주는거야. 너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시험삼아 마셔 보길 바래. 우유를 먹어서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을거야.

우린 3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지금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라 생각해. 그리고 나도 우유에 대해 모르는게 많아. 내가 알고있는 우유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가르쳐 주길 바래.

난 네가 무척 보고 싶단다. 우리 서로 만날기회가 있겠지? 그때 살도 통통하게 오르고 키가 부쩍커진 널 볼수 있을것 같아.

부모님께 대신 안부전해줘. 다시 만날때까지 안녕.

너를 그리워하는 벗 강 국화로부터